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5월 둘째 주(5/10)까지 점심, 그리고 오후찬양예배는 없습니다. 이번 주(5/1)부터 금요기도회를 가집니다. 수요일예배는 다음 주(5/6)부터 갖겠습니다. 단, 새벽기도회는 계속해서 가집니다.
3. 2020년 '축복의 가정심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방 받으시는 가정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일(토) : 최순애 집사, 이명희 집사, 5월 3일(주일) : 유갑순 집사, 김우남 성도>
4. 이번 주 토요일(5/2) 청소년당은 우즈베키스탄 목장(유종열 장로)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4월 추천도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의 길>, <주일성수>,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이상 3권입니다.
6. 오늘 점심 식사는 미리 공지한 대로 없습니다. 대신 양배추(황희용 권사)에서 맛있는 떡으로 준비해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5월 3일	5월 10일	5월 17일	5월 24일
예배기도(오전)		유종열 장로	권용기 집사	신동기 집사	오진석 집사
예배기도(오후)		'코로나19'로 인해 없습니다. (추후 변경 가능)			
주일식사담당		양떼 목장 (황희용 권사)	담임목사 가정	헵시바 목장 (김금옥 권사)	로렘 목장 (정진숙 권사)
토요일청소(고정)		우즈베키스탄목장 (첫째 주 토요일)	캄보디아목장 (둘째 주 토요일)	카자흐스탄목장 (셋째 주 토요일)	키르기스탄목장 (넷째 주 토요일)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0년도 남·여 목장과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2. 교회학교(유치아동부, 중·고 학생부, 청년부)와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
3. 2020년도 축복의 가정심방을 위해서
4.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티(함안), 온누리비전교회(양구)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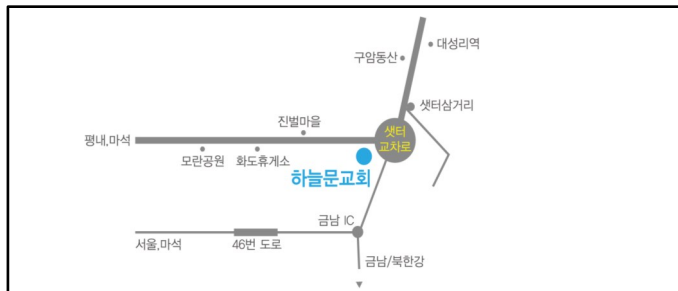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종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시교독 교독문 13번(시편 23:1-6)	다같이
*경배찬송 37장(통 37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43장(통 57장)	다같이
대표기도	신태식 장로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골 3:12-17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무엇을 하든지 간에'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송 620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5-6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로마서 강해 ⑧ 허영진 목사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새벽기도회 새벽 5:30 은혜의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벚꽃 지면 이팝나무에 새하얀 꽃들이

화사하게 피었다가 사라진 벚꽃의 아쉬움에 교회 뒷마당을 갔더니 노란색 민들레꽃이 지천으로 피었다. 살랑이는 봄바람 대신 이번 주 내내 강풍이 몰아치고 있다. 그나마 봄이 되면 만나는 야생화를 보면서 잊고 있었던 옛 동요가 메들리로 묶여서 절로 나와 흥얼거린다. 교회 안마당에도 수많은 잡풀이 훌쩍 커버렸다. 감당하지 못할 나중을 대비해서 한 무더기의 풀을 뽑았다가는 “저도 생명이 있겠지.”하는 생각에 금방 포기하고 말았다. 세상 천지에 생명이 움트는 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연신 조심하고 의심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보니 예전 평화로운 일상은 사라진지 오래다. 그럼에도 연락이 뜸했던 지인들이 생각나, 안부 메시지를 썼다 지우길 반복했다. 교회 담장 곁에다가 단풍나무 심기 등. 이 봄에 시도하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 마음만 부산하지 어느 것 하나 해 놓은 것 없이 시간만 야속하게 흐른다.

러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영화감독 안드레이 타르콥스키가 1986년에 만든 영화 <희생>에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온다. “옛날에 한 수도원에 늙은 수도승이 살고 있었다. 그는 죽은 나무 한 그루를 산에 심고 제자에게 말했다. 나무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매일같이 물을 주도록 해라. 그렇게 3년 동안 물을 주다가 어느 날 나무에 온통 꽃이 만발한 것을 발견했다. 끝없이 노력하면 결실을 얻는 법이지.” 늙은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함께 바닷가에 서 있는 양상한 나무 한 그루에 물을 주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이 오래된 흑백영화는 신과 인간, 그리고 구원과 희생을 이야기한다. 영화의 마지막에 나무는 다시 등장한다. 그렇다면 고목에 꽃이 피는 기적이 일어났을까? 나무를 다시 살려보려는 수도승의 의지보다 중요한 건, 매일 매일 조금씩 물을 길어 나무로 걸어가는 발걸음. 그 발자국이 쌓여 꽃은 피었다.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면 조금씩 ‘성화(聖化)의 삶’을 사는 것이다. 누구나 추구하는 일들이 있을 게다. 바른 목적, 바른 방향을 따라 인내하며 조금씩 앞을 향해 나아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그 일의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조금은 힘들지라도 말이다. 지금은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인지 다음 성경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깊게 새겨진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시 126:6). 이른 아침, 노회일로 종로를 찾았다. 만나는 이마다 시름의 깊이는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오는 차에 함께 동승했던 선배 목사님이 그런다. “벚꽃이 지면 바로 이어서 이팝나무의 새하얀 꽃이 펴요.” 채우지 못하거나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의 아픔은 크겠지만, 구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으면 한다. 성도는 내일의 소망을 붙들고 현재를 딛고 사는 사람이기에.

Written by 허영진